

2016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 신입학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출신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 작성 시 답란과 해당 문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이를 어길 경우 '0'점 처리함)
- ②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③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④ 제시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⑤ 검정색 필기구(연필, 볼펜, 사인펜 등)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그 외의 색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문제 1** 기술문명시대를 살아갈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 이를 제시문 [가], [나], [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논하되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포함시키시오. (1000±100자, 60점)

[가] 안녕, 컴퓨터야.

지난번 편지에서 내가 ‘나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인간들이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는지 알려줬지. 오늘은 일반적인 문제를 소개할게. 우리 인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단지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말에 정말 의미를 담아서 진지하게 하느냐 여부도 중요해.

네가 우리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이것도 배워야 해. 꽤 어렵다고 느낄지도 몰라. 가령, 누군가 너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쉬울 거야. 그런데 네가 정말 반갑다는 걸 상대방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거니? 또 네가 실수를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만인가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니? 네가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네 프로그램을 바꾼 뒤에도 너는 계속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지? 네가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놀랍습니다”라고 말할 때 너의 기계 작동 속에서 “놀라다”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 거니? 네가 “내 명예를 걸고 이것은 정답입니다. 내 말에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무슨 뜻으로 “명예”라고 말하며, “책임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아니면, 누군가 네게 “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니?”라고 물으면 너는 뭘 근거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거니? 우리 인간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 때 그러는 거야. 그러나 너에게, 네 말과 별개로 “정말로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한 거니?

이 질문들이 독특한 이유는 아무도 네게 그 답을 가르쳐줄 수 없다는 데 있어. 우리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면서 그 답을 배워. 너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배워야 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운을 빌어!

[나]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우리의 감각을 의식하자마자,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느냐 아니면 불쾌감을 주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와 사물들 사이의 조화 또는 부조화에 따라, 끝으로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나 완벽에 대한 관념에 의거하여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 따라 우리는 그 감각을 만들어내는 사물을 추구하거나 피할 마음을 품는다. 그러한 성향은 우리가 더 예민해지거나 더 계몽됨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에 의해 방해받는 그 성향은 우리의 편견들에 의해 많게 또는 적게 변질된다. 그러한 변질 이전의 성향을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연[또는 본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이 원시적인(primitive) 성향과 조화되어야 한다.(중략)

자연의 질서 속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므로 그들의 공통된 소명(vocation)은 바로 인간이라는 신분이다. 그러므로 그 공통된 소명에 맞게 잘 교육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과 관련되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 내 학생이 군인이 되든, 사제가 되든, 법관이 되든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 그의 부모가 그를 장차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든, 사제로 만들려고 하든, 아니면 법관으로 만들려고 하든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 부모가 선택해주고자 하는 직업에 앞서 자연은 먼저 그에게 인간이기를 요구한다.(중략)

<뒷면에 계속>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확히 우리의 욕구를 줄이는 데에만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욕구가 우리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면 그 능력의 일부는 하는 일 없이 놀게 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향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가 더 큰 비율로 확대되면 우리는 그만큼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능력에 비해 지나친 욕구를 줄이고 역량과 의지를 완전히 동등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모든 힘이 사용되지 만, 마음은 평온을 유지할 때, 인간은 제자리를 찾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자연은 처음에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 자연은 인간에게 오로지 자기 보존에 필요한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능력만 바로 주었다. 그 외의 모든 능력은 필요할 경우에 발달되도록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저장해놓았다. 권력과 욕구의 균형이 이루어져 인간이 불행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그 원시 상태 안에서 뿐이다.

[다] 생체칩을 이용해 ‘사이보그 인간’이 되기를 꿈꾼 과학자가 있다. “인간이 컴퓨터와 결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매달린 영국의 저명한 인공지능 연구자 케빈 워릭 레딩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17년 전인 1998년 인류 최초로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했다.

워릭은 인간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외부입력장치 없이 직접 컴퓨터와 접속하는 세계를 구상했고, 팔에 동전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이 구상을 실험했다. 9일 동안의 실험 기간에 워릭의 이동 정보는 팔 안에 있는 칩을 통해 고스란히 컴퓨터로 전송됐다.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연구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면 불이 켜지고 연구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워릭은 이 실험을 ‘프로젝트 사이보그 1’이라고 명명했다. 인간의 신체기능에 컴퓨터가 결합된 ‘사이보그’가 됐다는 뜻이다.

4년 뒤 그는 칩을 이용해 인간의 신경신호를 직접 전송하는 실험을 했다. ‘프로젝트 사이보그 2’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실험에서 워릭은 신경계에 직접 칩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경신호를 보냈다. 그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대서양 건너 영국 레딩대학에 있는 로봇 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아내의 신경에도 칩을 연결해 자신이 높은 곳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신경신호의 형태로 아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몸 안의 칩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미흡하나마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워릭은 생체칩이 신경신호를 완벽하게 읽어서 뇌로 전달한다면 신경계가 손상된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로봇 팔다리를 이식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릭은 여전히 인공지능 연구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살아있는 쥐의 뇌를 이용해 로봇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에 대한 튜링테스트(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과 가깝게 만들어졌는지 가늠하는 시험)를 실시하면서 오랜만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자신의 ‘프로젝트 사이보그’ 실험에 대해 “인간이 가진 자연적 능력은 기술과 결합하면 더욱 증진될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보통 인간’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2** 제시문 [나], [다], [라]를 논거로 삼아 제시문 [가]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고민스러운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800±80자, 40점)

[가]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는 사회의 저변에서 발생한 몇몇 의미심장한 중대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 집단적 학생 폭력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군병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가혹행위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지는 살상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 이 문제는 국가의 교육기관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국가 사정 기구가 나서 전면전을 선포하여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형태를 띠고 발생하지 않는 한 사법기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래적 의미의 인성 교육 또는 도덕교육을 통해 예방될 수 있는 문제도 전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아예 문제로서 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

<다음면에 계속>

전체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아픔을 느껴야 한다. 아픔이 없고서는 아무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따라서 그것의 해결을 위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과거 공권력이 남용되던 시절 거대 폭력에 맞설 때 느껴지던 비장감이, 더 골치 아프고 숨어서 행해지는, 따라서 어쩌면 더 악질적인 형태의 폭력 행위를 개탄하는 자리에서는 전혀 감돌지 않는다. 어쩌서 그럴까? 아마도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고민스러운 성격’을 잘 말해주는 듯이 보인다.

[나] 국가가 사회 및 문화와 맺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두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모든 것, 즉 유럽의 근대성과 세계의 근대성 그리고 그것의 산물인 자본주의가 모두 국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국가주도의 근대화 과정을 겪은 나라들, 예컨대 20세기 전반(前半)의 독일과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실망하고 이후에는 민족사회주의를 주창하여 나치즘에 근접한 베르너 쾰른, 적과 동지의 구별을 ‘정치적인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카를 슈미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반대로 국가는 불완전하고, 가능한 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도, 모든 책무를 다 할 수도 없으므로 괴롭더라도 다른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아마 이 입장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해 공공선의 이름으로 개인들을 억압할 권리를 갖지만, 어느 국가도 지배계급과의 공모 없이는 지탱하지 못한다고 본다. 요컨대, 국가는 사회와 문화에 비해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구조와 방식, 즉 모든 구조에 스며들어있고 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힘은 국가를 훨씬 넘어서 있다. 그 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계들을 합쳐놓은 것이고, 모든 강제수단들의 축적(蓄積)이며, 그곳에서 국가는 늘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고, 그곳에서 국가는 흔히 전체의 핵심 부분이지만 국가가 유일한 지배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는 지워져서 사라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 헤게모니(hegemony)라는 용어는 원래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체결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군림했던 아테네를 가리키는 ‘헤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현대에 들어와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레닌에 의해 노동자-농민 동맹에서 노동자계급이 행사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리키는 말로 재해석되었다. 그 후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러한 레닌의 헤게모니 개념을 확대하여, 이를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리더십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나아가 이때의 리더십은 오로지 강제만이 아니라 동의를 통해 관철된다고 역설하면서, ‘강제+동의’로서의 헤게모니는 피지배층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지배층의 리더십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배층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설득을 통해 피지배층을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진정한 혁명은 국가 기구를 폭력적으로 타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가 기구를 옹호하고 있는 다양한 동의 기구, 그러니까 학교, 군대, 교회 등 시민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해체해 나아가는 끈질긴 지구전, 즉 기동전과 대비되는 진지전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헤게모니론은 경제적 토대가 정치적·문화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환원론을 수정해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둘째, 헤게모니론은 시민사회에 비해 국가가 비대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경우보다는 시민사회의 동의 기구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서구의 경우에 잘 들어맞는 새로운 혁명 전략이다. 셋째, 헤게모니론은 이탈리아 근현대사에서 확인되는 세력 관계에 대한 그람시 특유의 역사적 비판의 소산이다. 즉 헤게모니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이탈리아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 근현대사가 왜곡되고 굴절되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라] 한국사회의 경우 36년간의 식민통치, 남북 분단, 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생산하고 지켜나갈 기성의 주도계층은 붕괴 또는 해체되었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주도적 세력이나 집단은 형성될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가 정치와 독립적으로 사회 영역 내의 주도적·독자적 규범을 생산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대신 정치권에서 반복해온 가시적인 폭행 관행을 사회도 따라갔다.

<뒷면에 계속>

이러한 상황, 즉 정치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거의 부재하거나 있어도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금전 같은 적나라한 힘이 다른 무엇에 우선하는 가치의 척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를 끌어왔던 정치 과정으로부터 독립된 사회규범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특히 구시대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유교규범은 나름대로 특정 시기와 장소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갖기도 한다. 예컨대 효를 강조하는 부자관계나 충을 강조하는 군신관계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되지만 그러한 규범이 단순히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에 차이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또는 양(兩)방향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현대에도 여전히 타당한 규범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나 규범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그것을 주도적 규범으로서 사회의 각 집단이나 개인들을 실효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회세력의 존재이다. 그런데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이나 가치를 정치세계에 반영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회세력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대부분의 사회세력은 정치권력에 의존 또는 봉사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다. 그리고 그 국가권력의 수립은 항상 정당성 문제를 야기했고 또한 수립된 정권은 사회적 부정·부패와 연루됨으로써 주도적 사회계급을 대신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의 획득에 실패하였다.

ibhak.ssu.ac.kr

<끝>